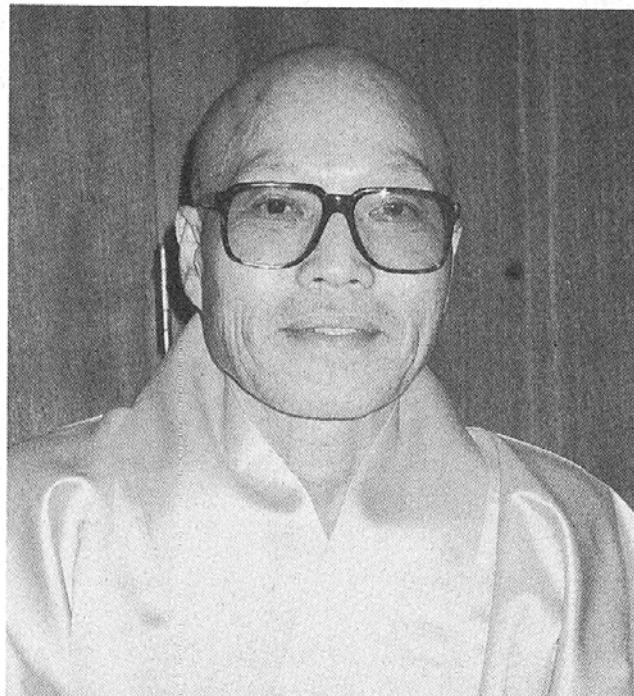


“수계는 계율실천 자기맹세”

조계종 단일수계산림 전계대회상 일 타스님

10월26일부터 11월1일까지 조계종 제 16회 단일계단 구족계 수계산림법회가 범어사에서 열려 일타스님을 전계아사리로 비구 148명 비구니 156명 등 모두 304명의 새 스님이 탄생했다. '간경변에 의한 식도정맥류'란 병으로 내차례의 수술을 받는 등 건강이 좋지 않지 않던 승려의 길에 들어서는 눈 푸른 새 남자들에게 율강의를 하는 등 올곧은 승종확립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은 일타스님을 범어사에서 만났다.

만 한다고 비난하지만 그들이 결코 공부를 게을리 하는 것은 아니거든. 일부 몇사람들이 계율을 어기는 경우는 있으나 열심히 수행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예요. 근본은 그렇게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율장의 내용을 시대에 맞게 고칠 것은 고쳐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율장의 근본정신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서 나온 이야기 같습니다. 율장을 아는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초가집을 짓는 방법과 고층건물을 세우는 방법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춧돌을 놓고 땅속 깊이 기초공사를 하는 정신은 똑같은 것입니다. 지역적인 것은 변할 수 있어도 근간은 변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지역적인 부분에 한해 개정할 필요가 있는 것은 승단의 중지를 모아놔야지요. -이번 구족계에 앞서 올초부터 비구

수요 인터뷰

은혜사 올도량으로

-계를 받을 때는 스님들뿐 아니라 일반 재가불자들도 비장한 모습으로 각오를 새롭게 다지게 됩니다. '계를 받는다'는 의미는 무엇인지요. ▲자율자 운동을 하는데도 신호를 지켜야 하는 것은 상식에 속하는 일입니다. 어느 사회, 단체를 막론하고 그 근간

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틀이 필요하지요. 승, 속을 망라한 불가의 사부대중에게 해당되는 기본적인 틀이 경을 받은 사람 중 제 일장인 율장입니다. 율장은 불자가 지켜야 할 법규로서 '수계'란 곧 이를 실천하겠다는 자기맹세입니다. -조계종이 선 우위의 선교양종을 표창하고 있음에도 실제 수행에 있어서는 재가자들의 실행에 있어서, 또 사찰별로 특성이 두드러지지 않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범어사 가서 말 잘하는 체 하지말고 혜인사 가서 경 아는 체 하지 말라는 말이 있듯이 계율과 상관없이 사찰별로 뚜렷한 특성이 있었습니까. 그런 말들은 어찌보면 한국불교가 조선조 5백년, 일제 36년간을 지나면서 계율부재의 시대를 경험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계율이 제대로 서지 않았기 때문에 수행의 단도가 그만큼 낮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일제시대 단일계단인 뒤부터는 올곧은 계율정립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최근 승단의 지계정신이 과거에 비해 흐트러지고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까. 어떻게 해야 올바른 승종을 확립할 수 있는지요. ▲그점에 대해서 나는 낙관적으로 보고 싶어요. 대학생들이 공부하지 않고 데모

교통법규 상식이듯 율장 기초정신은 불변 “계법 살아있는 청정승가 사회악 청산 거울”

니계에서 비구니 율장강의를 비구니교수에게 맡겨 달라는 요청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개념정리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비구니는 비구에게 배우라'고 율장에 명시돼 있습니다. 반면 '식차마나니, 사미니는 비구니에게 배우라'고 되어 있어요. 이걸 일부 비구측에서는 포괄적으로 비구에게 배우라고 한데서 말썽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이번 수계법회에는 식차마나니(正學女란 함)들이 비구니가 되기위해 비구니스님에게 강의를 들었어요. 좀더 구체적으로 말해보죠. 설계(說戒 계를 설함), 송계(誦戒 계를 외음), 강계(講戒 계를 강의함), 학계(學戒 계를 배움), 교계(敎戒 계를 가르침)라고 하는게 있어요. 이중 강계와 학계는 비구니가 식차마나니를 가르치는 것을 말하며, 교계는 비구가 비구니에게 가르치는 것을 이르는 것입니다. 설계, 송계란 비구는 비구에게, 비구는 비구니에게 각각 가르침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덧붙이자면 '이구승수계'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는 비구니는 일단 계를 받아 비구에게 인정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다소 복잡한 개념이 차후에는 정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비구스님들이 비구니스님들을 지도하는 것이 사실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한 예로 여성의 생리문제를 비구스님이 어떻게 이야기 할 수 있었습니까. ▲비구스님들이 비구니스님들을 지도하는 것은 사실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한 예로 여성의 생리문제를 비구스님이 어떻게 이야기 할 수 있었습니까. -최근 조계종 전대총회의 비자금 파문과 관련하여 사회가 시끄럽습니다. 사회의 모범이 되는 스님들의 수행이 한층더 정제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요. ▲비자금 사건은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입니다. 온 국민을 경악스럽게 하는 이런 국가적 수치는 한 개인의 문제라기보다 이 사회 전반의 구조적인 문제라고 봅니다. 청정승가가 모범을 보여 국민 모두가 계율지킴이에 동참해야 사회악 청산이 가능합니다. -후학들에게 늘 당부하는 가르침이 있다면 알려주시지요. ▲잘 배우고 지계(持戒)하라는 말을 합니다. 조석예불시 '계행~'으로 시작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말그대로 계가 향기롭기 위해서는 스님들의 철저한 지계와 수행이 우선입니다. 계법이 머물러 있으면 불법은 삽니다. 지계정신은 바로 조고각하(照鏡下)하는 정신입니다.

부들 형성하고 있으며, 일본인들은 그들의 노력과 단결력으로 경제대국을 건설하였다. 그러나 우리는 보고교계를 졸업한 후나 졸업의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것 같다. 불교와 기독교를 비교해 보자. 교육적인 측면에서, 인간관계에서, 사회활동에서, 종교를 대표하는 이들의 질적 측면에서, 종교

활동에서 종교문화의 입장에서 어느것 하나 자랑할만한 것이 없다. 무엇 때문일까 고민을 해봐도 근거가 없다. 그들은 서로 협조적이며 우호적이다. 현금을 기쁜 마음으로 낼 수 있는 것이 그들이다. 우리는 같은 사찰내에서도 매끄럽지만은 않은 것 같고 보시하는 자세도 그럴 같지가 않다. 우리에게서 인연이라고 하는 좋은 언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로만 하고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된다. 이런 상황에서 불교음악 이외의 모든 예술분야에서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기가 쉽지 않다. 우리를 위해 우리의 미래를 위해, 다시한번 생각해 볼 시기가 되지 않나 싶다. 몇 년대만 있었던 합창단이 이제는 2백여 개의 합창단으로 확산되었고 찬송가 스타일의 찬불가는 교향곡과 교성곡으로까지 확대되었으며, 모든 행사나 의식에서 불리워지는 삼귀의와 사홍서원은 불교음악의 미래를 밝게 한다. 그러나 그 노력의 주체가 누구였는지는 확실하게 짚어봐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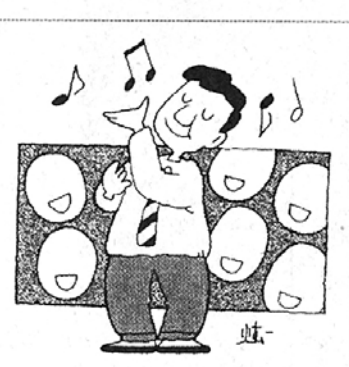
정부기 (작곡가 중앙대 교수) **나의 수행일기**

‘조파일송가’의 가사는 공덕스님의 글인데, 고인이 되신 한상림 선생님을 통해 전달되었다. 며칠의 진통 끝에 선율이 만들어졌고 하루만에 합창과 피아노 부문을 완성하였다. 이 곡속에는 부처님의 탄생에 대한 찬탄과 환희가 서로 대조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선율은 5음 음계로, 반주는 현대적으로 처리하였다. 이 곡은 널리 불려지게 됐고 현재는 나의 대표곡이 되었다. 대학 3학년 때 내게 좋은 기회가 주어졌다. KBS방송국에서 EBU(유럽방송연맹) 주최 세계 합창경연대회에 출품할 작품을 모집하였다. 네 작품이 선발되었는데 세 곡은 서울대 및 연세대 교수님의 작품이었고 나머지 한 작품이 나의 곡이었다. 법화경 중에서 방편품 일부와 대라니경, 찬불가, 사홍서원을 합창곡의 가사로 사용하였으며 곡의 제목은 ‘염불’이었다. 작품을 완성한 후 기쁜 마음으로 합창단 지휘자를 만났으나 마강 3일전에 거절당하고 말았다. 왜냐하면 지휘자 선생님이 독실한 기독교

그러기에 예술을 추구하는 이들의 정신적 감동이 더 심하고 믿음에 대한 필요성을 더욱 느끼는 것이 아닐까 하고 생각한다. ‘조파일송가’ 이후에 나는 열심히 찬불가를 작곡했고 합창단도 맡아 지도하였으며, 한국불교음악연구회를 만들어 불교음악의 기초를 확립하고자 노력하였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쉽게 풀리지만은 않았다. 가장 어려운 것은 경제적인 것과 인간관계였다. 전자는 물질적인 것이기에 정신적인 고충은 없었으나 후자는 그렇지 않았다. 한국, 중국, 일본인들을 생각해 본다. 서로 같은 황인종이고 같은 동남아시아국가인데 틀린 점이 있다면 언어와 풍습 그리고 인간성인 것 같다. 중국계의 화교들은 전세계적으로 엄청난

불교음악 작곡은 신심의 산물 기독교 음악인들 비협조에도 꺾이지 않아

신자로, 그 방면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는 분이였기 때문이었다. 처음에는 실망이 대단히 컸으나 하는 수 없이 재작업을 시작하였다. 고등학교 때 이미 만들어 놓은 선율을 이틀만에 합창곡으로 편곡하고 하루동안 사보를 하여 곡을 완성하였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시던 선생님께서 몇번의 연습 끝에 곡의 의미를 파악하고는 합창연습으로 나를 초대하였다. 연습전후의 상황이 상당히 바뀌었고 극진한 대접을 받게 되었다. 시골에서 아버님과 열심히 예불을 하며 군복무(방위)를 하고 있을 때 50여개국어 참가한 세계 합창제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매우 기뻐하고 작곡에 대한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염동생’이라고 하는 합창곡이며, 현재도 현대음악 분야에 확고한 위치를 확보하고 있다. 얼마전에는 합창곡 ‘염동생’을 70여개국에서 과제곡으로 사용한 때도 있었다. 훌륭한 곡이란, 노력의 결과이기보다는 한순간의 실수인지도 모른다. 그래서 나는 작가보다는 기능인이나 기술자들을 동경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시간의 노력에 대한 대가를 받기 때문이다. 그러나 창작은 시간과 관계가 없는 것 같다. 영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보장된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부들 형성하고 있으며, 일본인들은 그들의 노력과 단결력으로 경제대국을 건설하였다. 그러나 우리는 보고교계를 졸업한 후나 졸업의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것 같다. 불교와 기독교를 비교해 보자. 교육적인 측면에서, 인간관계에서, 사회활동에서, 종교를 대표하는 이들의 질적 측면에서, 종교

선우도량 창립 5주년 기념 「신문으로 본 한국불교 근현대사」 출판법회

귀의 삼보하옵고, 불초의 해명을 이어받아 시대의 등불이 되고자 창립된, 좋은 벗들의 모임인 “선우도량”이 올해로 창립 다섯해를 맞이하였습니다.

‘올바른 승가상의 확립’과 ‘승풍진작’을 기치로 출발한 선우도량은 그동안 근본도량 실상사를 중심으로 매년 2회의 수련결사를 개최하였고, 전문강원 화입학원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불교 근현대사 연구회>를 부설로 두어 불교정화운동 관련 자료수집 활동을 전개하여 왔습니다.

이번에 마련한 법회는 창립 5주년을 기념하여 한국불교 근현대사 연구회의 첫 실적인 「신문으로 본 한국불교 근현대사」 자료집의 출판법회를 갖고자 합니다.

그동안 저희 선우도량을 불심양면으로 도와주시고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마련한 출판법회에 수희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우도량 공동 대표 현봉·해담·도법 습삼

- 일 시 : 2539년 11월 18일 토요일 오후 2시 ~ 5시
- 장 소 : 조계사 문화 교육회관
- 준비물 : 스님-대가사
- 문의 및 안내 : 서울 사무실 전화 (02)278-8674 / 실상사 전화 (0671)34-3757, 34-3772

「붓대를 사랑한 가톨릭의사」의 「삼삼」사냥

임원담불교에세이 **배움**

구도자적 닥터에겐 세상의 모든것들 그것이 미니스커트였건, 붓대였건 모두가 스승이었다

불교 산문 미학의 극치!

- 매독, 지방간 등에 얽힌 진한 인간 이야기는 어느새 철학의 향기를 내뿜고 있었다...
- 원초적 욕심, 브리짓트 비로도, 죽은 김일성 등의 집결한 소재들은 이미 종교세계를 넘나들고 있었다...
- 순비덕 크기 작은 책에 다름아닌 우주가 담겨 있었다...

불교서적 판매 집계 7·8월 1위 9월 2위

4·6판/252쪽/5,800원 신국문/304쪽/6,000원

호명출판 TEL:756-0262, 874-0263 FAX:873-8716

히말라야 인도에 빠진 닥터